

실험이지 담은 대항문화의 조류

문화특집...컬트 영화의 물결을 이해한다

'글화위지'란 말이 있다. 하나의 문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더 발전된 모습이 아닌 오히려 더 저질문화로 변해버리는 현상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선진문화권에 의한 문화종속이 두드러진 나라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컬트영화'라는 커다란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 작은 글이 컬트영화의 다양한 일면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특징들을 정리함으로써 컬트영화의 올바른 개념정리와 수용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보급되는 폭력·에로물로서 포장된 저급 영화, 비디오 필름과 구별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몇몇 영화잡지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은 '컬트영화'란 무엇인가.

'컬트영화'란 단어는 몹시 낯설지만 이미 컬트영화는 우리나라에 많은 수가 개봉돼 있다. 요즘 들어 다양한 종류의 컬트영화 소개되고 있는데, 조나단 템의 "양들의 침묵" "가위손" "테르르·달도모로의 신경쇠약자의 여자" 샘·레이미의 "다크맨"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흥

행적으로 성공한 것은 '양들의 침묵' 정도이지만 이 작품도 단순히 흥미유발을 목적으로 본 관객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장문을 나갔을 것이다.

컬트(CULT)의 사전적 의미는 숭배·찬양 등의 의미로 접합될 수 있는데, 흔히 여러서적들에서 장문의 정의를 지니고 있는 소수의 영화평론가에게 열광적으로 지지받고, 찬미받는 영화라는 정의가 컬트영화

하였다.

즉, 이때에 이들이 만든 영화를 컬트영화라고 지칭할 때 이런류의 영화들이 갖는 특징은 전형적 허리우드 영화와는 아주 다른 성향을 가지며, 색다른 대사, 놀랄만한 플롯과 결과, 폭력적 테마, 포르노성 스펀 등을 이유로 이루어져 있다.

컬트의 이런 특징들을 살리기 위한 특수효과로서 스펀터클한 카메라작업과 다양하고도 실험적인 작가의 의지가 표출되어 있다.

이런 컬트영화 발생초기의 해석에 따른 영화적 특징은 점차

'가위손' '양들의 침묵'등 컬트영화 다수 개봉돼 폭력·섹스 등 사회문제 다뤄...정확한 이해 필요

의 정확한 해석이 필수는 없을 것이다.

어제까지 탄생된 다른 영화사조처럼 명확한 해석이 아직도 불가능한, 낯선 의미의 갖가지 해석이 내려지고 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수용될수 있는 것이 컬트영화의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컬트영화로 지목받은 최초의 작품으로는 1975년의 짐사편 감독의 'The ROCKY Horror Picture Show'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는 황당무계한 내용 전개와 과격적

화)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런 시대적 의식의 흐름이 청년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파급시켜 유럽의 젊은 작가들, 미국의 독립영화·다큐멘터리·실험영화 작가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런 결과로 이들 집단이 소자본으로 제작한 영화들은 이 당시 메이저 시스템에서 제작한 대작영화들이 상영되는 개봉관을 얻지 못하고 소극장이나 사인클립에서도 상영되어 그들만의 영화를 소수 그룹들이 즐기며, 상업적 이윤을 배제시킨 자신들의 예술적·오락적 욕구를 충족시킨 영화를 제작

사회가 변하고 의식이 변함에 따라 다양한 장르로 나뉘어지고 있다. 급기이 내용, 반사회적 성향, 과다한 폭력, 오락, 공포물, 섹스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에서 탄생된 영화의에도 기존의 영화구조와는 다른 형식과 내용, 독립적 자본으로 작가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작품까지도 크게 컬트영화의 범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에 이르면서 단순히 열악한 제작여건을 극복하고 일부관객들의 감각적 기호에 영합되어 만들어진 컬트영화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위치를 차지한 컬트영화들이 비평가들에 의해서 영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컬트영화를



◇ 흑인 연주자의 굴절된 삶을 그린 'MO BETTER BLUES' (下)

◇ 마약 중독자의 생활을 인간적으로 조명 한 'DRUGSTORE COWBOY' (上)

찾는 관객층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1989년도 이후 간느영화제에서 'Sex, lies and video-tape' 'Wild at Heart' 'Barton Fink'가 대상을 차례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고 영화화되면서도 폭력·오락 요소가 강한 흥행예측물의 성공을 부채질 했다.

대중들의 편견된 의식과 흥행업자들의 미흡한 영화적 소견에서 기인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우리 관객들의 영화적 안목이 허리우드의 상업영화에 치중된 성향이 지배적인 것과, 충격적 영상과 독특한 구성, 신선한 감각이 뛰어난 컬트영화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채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난받고 배척되었지만 단순히 오락적 욕구뿐 아니라 작가개성을 중요시하는 요즘의 세대가 반영했기에 컬트영화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미 전세계 극장의 반수이상과 전세계영화관객의 반수 이상을 사로잡고 있는 허리우드 영화가 UIP작배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을 장악해나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예로부터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제작·배급·유통부

문이 각각 독립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한국영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한국영화보다는 수익성 높은 미국영화의 수입과 배급이 이익확보의 주축을 이루는 영화계의 현실속에서 한국영화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영화의 질적인 발전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수용태도나 무분별한 수용태도보다는, 밀려오는 새로운 문화양식의 바람직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 철 호
(중앙대 영화학과·3)

문화단신

□ 극단 '현장' 공연

극단 '현장'은 열한번째 공연인 '지금 수술중'과 초창기기획공연인 대구극단 '함께 사는 세상'의 '노동자, 내 청춘아!'를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상연한다.

'지금 수술중'은 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후 치료유예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심마리를 풀어보자는 의도로 공동창작되어 지난 23일부터 9월2일까지 공연된다.

(문의:743-1266, 762-7320)

□ '91 통일한마당 열려

서울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이하 서울민통연)은 오는 31일 오후4시, 한양대 대강당에서 '91 통일한마당'을 연다.

'91 통일한마당'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통일원력을 노려하는 것이 되기 위해 1부 열림판(통일의 문을 열고), 2부 노래공연(여기 우리 하나로), 3부 노래극(조국, 그 하나됨을 위하여)을 공연하고 4부 대중놀이하는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진행한다.

(문의:서울민통연 763-2544, 765-9721)

□ 영문학과 연극 공연

영어영문학과 연극부는 제25회 영어연극 정기공연으로 셰익스피어 원작의 '한여름밤의 꿈'을 오는 30일 오후6시, 31일 오후3시, 6시에 중앙도서관 시청각교육실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영문과 총동문회의 후원이며 연출에 안정렬, 기획에 박우식이다.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란 '권위'라는 용어의 개념적·의의적 성으로 인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D.H.Wrong이 권위를 '합법적인 권력'으로 복종이 그의 의무라는 신념에 근거한 대상에 자발적인 복종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듯이 권위주의는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의 정당성을 문제시하지 않고 권력을 권위로서 포용하며 권력에 대한 정당한 의혹이나 비판까지도 신성한 것에 대한 모독 내지 범죄로 보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을 취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가 성립하면 권력의 장악자인 통치자는 지배에 임해서 강제기능의 사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또 그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자는 항상 권위주의적 지배체제 수립에 노력하게 된다.

그러한 권위주의체제로서의 정형은 신대통령제(예:프랑스 5공체제, 한국의 유신체제), 개발독재제, 독재통령제(예:Spain의 Franco총통제)들로서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단일적 권력보유자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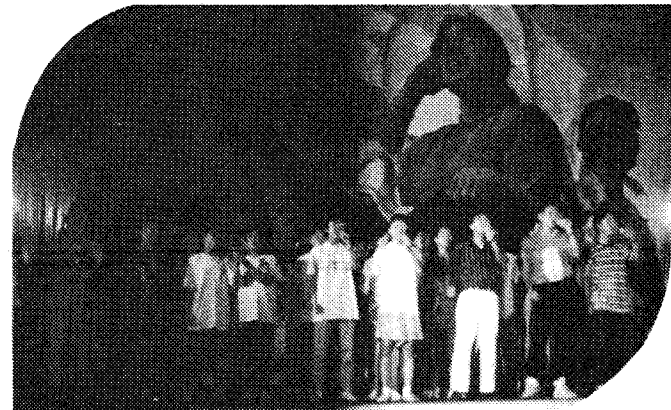
권위주의

권위주의란 권위주의적 통치형태는 절대 군주주의로부터 입헌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도기단계에서 발견되며 현대입헌민주주의로부터 행정권의 우월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완성된 민주주의로부터 신민주주의로의 역행적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신생국에 있어서는 근대화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체제는 그 정치과정상 상황적 요인으로 국민다수의 부정적화나 제한된 정치적 다원주의를 속성으로 하며 정책결정은 관료조직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권한의 제한은 야당과 언론 및 법원을 통해서 견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자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대에 있어서 권위주의체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권자들이 물리적 강제력을 직접 행사하기 보다는 현대의 특유한 통제 기술인 선전과 상징을 통하여 국민의 건전한 비판력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동원하는 대중조직·대중운동이 문제 되는 것으로 그 극단이 파시즘의 발흥이었다.

윤 근 수 (대학원 석사·정치학)



◇ '제 4회 전국대학생 통일 노래 한마당'은 지난 14일 새벽 2시부터 6시30분까지 진행되었다

지난 13일 이문대(1)에서 승리한 후 새벽2시까지집회를 마치고도 지치지 않고 아침6시부터 통일노래한마당을 치렀던 전국대학생중에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받은 이들이 있다.

바로 '제4회 전국대학생 통일노래한마당'에서 으뜸상(대상)을 수상한 전남대 사회대 노래패 '한울림'이 그 주인공들이다.

단체 학우들을 노래로써 하나

누구보다 노래에 대한 열정과 욕심 많아 질적 발전위한 창작·학습기풍 확립주력

로 묶어세우고, 노래패의 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만들어진 한울림은 "구성원들의 노래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무엇보다도 자랑"이라고 말한다.

현재 14명의 사회대 학생들이



전남대 노래패

활동하고 있는 한울림은 동아리 방이 좁아 늦은 시간을 택해 강의실에 모여 노래연습을 해왔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각단체 노래패들이 모여 꾸민 '단체 노래패 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각 단체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노래를 불러 선전활동을 펴기도 하고, 교내 노래대 활성화와 효과적인 대중 선전을 위해 가두시위 때는 '진주 울동대'를 꾸려 문화선동활동을

민중가요의 절적인 발전을 위해 창작과 학습의 기풍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한울림이지만 이번 통일노래한마당의 출품작인 '통일 아리랑'을 공동창작할 때에는 마음만 앞서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실학민인 한 후배의 곡을 받아 편곡된 '통일 아리랑'은 분단의 아픔과 민족의 통일열원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

"13일 진입때 너무 힘들었고

'한울림'

이크소리도 잘 안들리는 상태에 갑자기 호명하는 걸 듣고 엉겁결에 뛰어나가 상을 받았습다. 그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상을 받는다는 설감도, 기쁨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서운하기까지 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전남대에서는 처음으로 통일노래한마당의 대상을 받은 큰 경사로서 모두가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며, 한울림은 그동안 도외준 단체노래패 의장, 평소 돈에 대해서 찌꼬 소문났으나 이번만큼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사회대 총무, 자기일처럼 국악만주를 열심히 해준 바른 국악연구회 '영정귀'에 대한 감사의 말도 빼뜨리지 않았다.

언제나 통일의 고매를 늦출 수 없는 우리들의 귀에는 아직까지도 노천극장에 울려 퍼지던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이금주記者)

操縦訓練生 모집

당신도 2년후에는 대한항공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창공의 주인공— 파일럿! 그간 조종경력자 특수 교육기관 출신에게만 개방되었던 그 문을 당신에게 활짝 열어드립니다. 일반 대졸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일하게 민항공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한항공 기초비행훈련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세계의 하늘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募集人員 및 應試資格

모집인원	응시자격
60~70명	●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단, 자가용조종사면장소지자는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1992년 2월이전 졸업예정자 (전공제한 없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건강한 자로서 나안시력 1.0 이상인 자 (항공법 시행규칙 제71조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조종사 면정소지자는 우대함

教育期間 및 處遇

- 교육기간: 2년
- 처우: 대졸사원에 준하는 처우 (교육이수후 소정의 자격취득시 대한항공 조종사 요원으로 입사)

提出書類

- 응시원서 (당시 소정양식) 1부
-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전학전 성적증명서 1부

銓衡方法

● 필기시험

과목	일시	장소
영어 일반지식 · 기초수학 · 기초물리 · 일반상식	9월8일(일) 09:00~11:30	이화여고

● 추후 전형절차: 적성면접 → 신체검사 → 비행적성실기시험 → 면접

※ 추후 전형 일정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

應試願書 交付 및 接受

- 기간: 1991년 8월26일~9월7일(공휴일 제외)
- 교부처: 서울 KAL 빌딩 및 대한항공 국내 전 자점/영업소
- 접수처: 서울 KAL 빌딩 및 부산, 제주지점

其他

- 우편접수는 마감안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번호 100-608, 서울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인사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제법에 의거 우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인사부 또는 접수처로 문의 바람

TEL: 서울 751-7334/6 부산 461-7212 제주 50-8211

금회모집 이후에는 年中常時로 원서교부 및 접수할 예정이며 채용전형은 수시로 실시함.

